

드림 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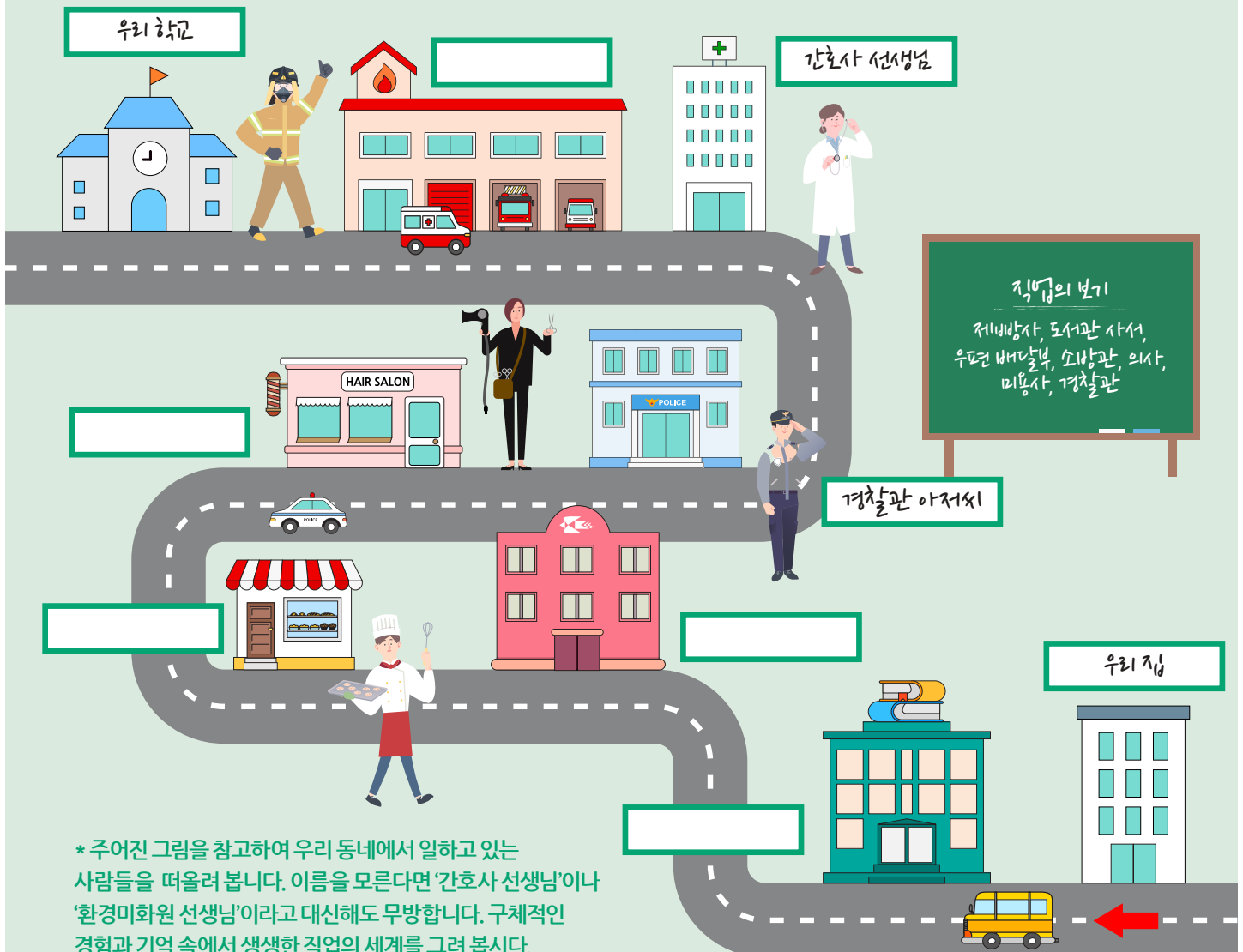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2019-11호

학교 가는 길에 만나는 직업의 세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어린 시절에 친절한 가게 주인이나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며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꿈을 키웠던 적이 있나요? 우리 자녀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 공동체는 자녀가 생애 처음으로 만나는 생생한 직업 세계의 현장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자녀의 기억, 그리고 학부모님의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 동네의 직업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해 봅시다.



* 주어진 그림을 참고하여 우리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이름을 모른다면 '간호사 선생님'이나 '환경미화원 선생님'이라고 대신해도 무방합니다. 구체적인 경험과 기억 속에서 생생한 직업의 세계를 그려 봅시다.

우리 동네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나요?



* 어떤 직업을 연상시키는 물건이 숨어 있는지 찾아 보며 옆의 그림을 색칠해 봅시다. 학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오늘날 직업의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Q. 학부모님은 어린 시절 어떤 동네에 살았나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자녀가 한 사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의 관심과 애정 또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년기에 접하는 지역 공동체는 자녀의 성장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린 시절 학부모님의 동네에는 어떤 어른들이 살고 계셨나요? 유년기를 보낸 골목길과 시장 거리, 통학길의 추억을 떠올려 봅시다.

Q. 진로 혹은 직업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 어른이 있었나요?

중증외상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이국종 박사는 어린 시절에 만난 한 외과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의사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하세요. 생애 초기의 경험은 한 사람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학부모님이 어린 시절 만난 사람 중에 ‘나도 커서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하도록 영향을 준 어른이 있었나요?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어른이 혹시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분일까요?

Q. 과거와 오늘날 학교 가는 길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학부모님이 학교를 오가던 길은 어떤 풍경이었나요? 한국의 경제성장기에 유년기를 보낸 조부모님이라면 비포장도로나 징검다리의 추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의 통학로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꼬마들의 발걸음을 붙드는 술한 유혹들 또한 시대적 변화를 맞이했지요. 학부모님의 학창 시절 추억을 떠올려 봅시다. 어쩌면 문구점 앞에 즐비하던 뽑기 기계, 갤러그, 불량과자 이야기도 무심코 흘러나올지 모릅니다.

Q.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 등장했나요?



우리 자녀는 접해 보지 못했지만 학부모님의 어린 시절에는 흔히 만날 수 있었던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부모님은 버스 안내원을, 학부모님은 레코드 가게 점원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학부모님의 어린 시절에는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 자녀는 자연스럽게 만나고 있는 직업인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원이나 유튜브가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한 세대, 또는 두 세대가 지나는 동안 변화한 직업 세계의 풍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Q.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오늘날 일부 놓여준 지역을 제외한 도심 지대는 ‘마을’이라는 지역 공동체 단위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시대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직업 세계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버스 안내원은 없어졌지만 드론 조종사, 자율주행차 정비공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듯 말이지요. ‘사라지는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을 이분법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직업적 본질을 찾고 키울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한 학부모님의 이해는 자녀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